

제목: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 창세기 23장 1-20절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을 목상하다가 보면 사람이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늘 기적의 역사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운 인도하심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1. \_\_\_\_\_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살아야 할 \_\_\_\_\_을 계획하십니다.

3.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_\_\_\_\_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현금	
십일조	
주일	
합계	

##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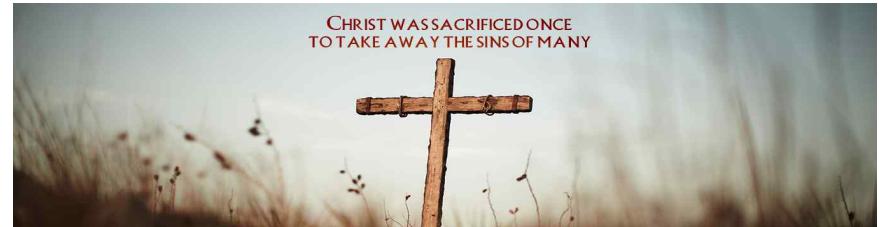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 창세기 23장 1-20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23: 1-20 구약 29 페이지 Presider

말씀 .....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현신기도 .....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가장 좋은 피서지)

오랜만에 먼 길을 운전했다. 12시간 걸리는 거리여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에 도착했다. 가는 길이 멀었지만 뜨거운 기운이 더욱 힘들게 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산호세 산을 넘자 108도가 갑자기 20분 만에 68도가 된 것이다. 믿겨지지 않았다. 아무리 시원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까지 시원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사흘간 지나면서 바다를 만끽하게 되었다.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온도의 차이는 너무 컼고 사람들이 사는 분위기도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는 아침저녁으로 긴팔을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많았다. 더 있고 싶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운전을 하고 떠나왔다.

떠나오면서 생각이 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온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뜨겁다. 여기저기에서 산불의 소식이 들린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 너무 더워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답답하다. 고립된 것 같다. 방향을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저 산 넘어만 가면 모든 일들이 달라지지 만 지금의 형편이 나를 이곳에 가두어둔다. 그런데 실은 상황이 나를 가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두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더위와 어려운 상황을 피할 길을 그곳에서 찾지 말고 저 언덕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 비밀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저 언덕을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개를 넘어 살 수 있을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 언덕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골고다 언덕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전부 지고 가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무리 용광로와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살만한 곳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난주 어느 한 백인 목사님께서 올린 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에서 해방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으며 그 글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오직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세상이 말하는 피서지를 찾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은 살만한 길이고 갈만한 길이며 나에게 가장 알맞은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시원한 길이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를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김인선 선교사: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0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특별 헌금

어려움을 당한 St. Andrew 장로교회에 사랑의 헌금 (\$1,000)을 보내드렸습니다. 교회의 시간에 그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